

경인제일교회 이정식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모리셔스 선교사 최인규 박정희 입니다.



아프리카 땅끝에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 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땅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것을 믿습니다.

모리셔스의 상황

남반부에 위치한 모리셔스는 한국은 계절이 정반대여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온만 높아지는게 아니라, 한국의 태풍과 같은 사이클론이 몰려오는 계절이 되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기대와 긴장감을 함께 가지면서 새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보다 5시간이 느립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오전 9시면, 이곳은 새벽 4시정도가 됩니다.

특pecially 10월이 되면 모리셔스 인구의 절반이 믿고 있는 힌두교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디왈리 Diwali가 다가와서, 온 나라가 휴일분위기로 다가오는데 이 분위기는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정착과 적응의 과정

주님 은혜로 한걸음 한걸음 배우고 적응하며 정착하고 있습니다.

10월은 저희 가정이 모리셔스로 들어온지 딱 한해가 되는 때 입니다.

선교편지를 잘 받고 읽어보셨으면, 카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알려 주세요! 010-9076-9065



선

대학예수교장로회
교편지 27호

총회 파송 선교사

코로나가 최고도일때 다시 선교지로 복귀해서 많은 일상이 이전과 달랐지만, 주님 은혜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것은 저희 가정의 두아이(주은,주아)가 학교와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사역의 발걸음

* 교회 목회 사역:

* 성 콜롬바교회는 이제 대부분의 교인이 대면예배의 자리로 복귀 하였습니다. 10월 2일 주 일에는 교회에 새로운 장로님을 안수하는 시간도 갖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교회에 오고, 목회를 시작한후에 교회학교의 인원이 15명까지 부흥하여서, 내년부터는 교회안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훈련하는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교단연합집회 사역:

* 모리셔스에 있는 개신교 여러교단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었고, 이번달에는 교역자를 비롯한 교회지도자들이 수양관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 비아베뉴 유치원 사역

* 박정희 선교사가 매주 유치원을 방문하여서 몬테소리 교육법으로 아동들을 가르치고 교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제목

* 아내 박정희 선교사의 왼쪽 귀에 문제가 생겨서, 현지병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끝에 귀 수술을 위해서 11월말부터 약 한달간 한국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치료와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기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최인규,박정희,최주은,최주아 선교사 드림

<—————

왼쪽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최인규 선교사의 카카오톡과 연결됩니다.

